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2. 12. 28.(수) 16:0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6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2년도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65차, 제66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22-67-258)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한국방송 공사의 전주UHD방송국과 청주UHD방송국 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조건을 부과 하여 허가를 의결한다’입니다. 허가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KBS가 신청한 전주·청주UHD방송국 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신청현황입니다. KBS전주제1UHDTV방송국은 전라북도 전주시, 김제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을 방송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KBS청주제1UHDTV 방송국은 충청북도 청주시와 증평군을 방송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추진 경과입니다. 2020년 12월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5> 신청서 주요내용입니다. <가> UHD 방송시설 투자계획입니다. KBS 전주총국의 경우 1개 방송국과 3개 방송보조국에 대한 송신시설 구축 계획으로 총 41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주총국의 경우 1개 방송국, 1개 방송보조국에 대한 UHD 송신시설 구축 계획으로 총 25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나> UHD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입니다. 2023년 27.84%, 2024년 36.72%의 계획을 제출했으며, 이는 UHD 최소 편성비율을 준수하는 계획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다> UHD 관련 인력 운영계획입니다. 전주총국의 경우 110명, 청주총국의 93명으로 기존 KBS총국 인원을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라> UHD 방송 홍보계획입니다. 개국 특집 프로그램, ‘UHD 공익광고’ 송출, ‘공동주택 지상파 UHD 직접 수신 시범사업’ 등에 대한 홍보 자막 등을 홍보사항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결과입니다. 전과 법에 따라 심사항목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KBS가 제출한 방송구역 중 7개 지역에 대한 방송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KBS는 자료 보안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 검토 결과입니다. 본 신청 건은 2020년 12월 수립한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 정책방안’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방송법 제10조에 따른 검토결과, KBS는 이미 수도권, 광역시 및 제주

권역에서 UHD 방송사업을 허가받은 사업자로 신규 UHD 채널은 기존 HD 채널과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계획이며, '방송의 공적책임',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기술적 능력' 등이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연도별 UHD방송 편성비율 계획은 최소편성비율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KBS의 전주·청주UHD방송국 신청 건을 검토한 결과, 허가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며, 허가 유효기간은 신규허가인 점을 고려하여 3년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 최소 편성비율, 수신환경 실태조사, UHD 추진 실적 보고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허가 유효기간의 경우 KBS가 요청하는 경우에 금번 허가대상 방송국의 유효기간을 기 허가된 KBS의 UHD방송 유효기간과 동시에 끝나도록 조정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지금 6쪽에 보면 청주방송은 진천군은 원래 일원이었는데 일부로 조정됐지요? 원래 일원이라는 것은 전체가 50% 이상 되어야 하는데 커버리지가 37%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다음에 괴산군은 원래 계획은 일부였다가 이번에 아예 제외가 되었습니다. 남원시, 순창군,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도 제외가 됐습니다. 원래 KBS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후퇴한 것 같은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실제 과기정통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산악지형에 따라 전파가 실제 도달하지 못하는 점이 있고, 향후 이러한 부분들은 기간망이 구축된 이후 방송보조국을 통해 난청해소에 대한 부분을 추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냈습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는 KBS의 경우 도권역 방송국에 대한 부분을 우선 추진한 후 그다음에 지역별로 보조국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진행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과기정통부와 우리가 나중에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지요?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하신다는 의견이시지요?

○ 김효재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2020년에 발표한 UHD 활성화 정책방안에 따른 신규 UHD 방송국 허가 건인데 국내 방송 여건이 어렵다고 하지만 UHD 전국망 구축이 내년에는 실현될 수 있도록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선도적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여러 논란이 있었습시다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상파가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UHD 방송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KBS 전주와 청주UHD방송국 허가는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일보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상파사의 지속적인 투자와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2-67-259)

###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성욱 편성평가정책과장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사회·투명경영 노력에 대한 사항을 방송평가 항목에 도입하는 내용으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3>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주요내용입니다.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 항목을 신설하고 가점제도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적용대상 방송사업자는 중앙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가 되겠습니다. '24년에 평가하는 '23년도 방송실적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평가점수는 운영 환경에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환경경영 노력' 등에 대해 10점을 가점으로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평가 세부기준 개정과 관련해서는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여부, 환경경영 목표 수립 여부, 친환경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친환경 프로그램 또는 캠페인 편성 여부를 세부기준으로 도입하고, 「방송평가 세부기준」은 방송평가규칙 개정 완료 이후에 곧바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5> 행정예고(안)에 대한 방송사의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평가규칙 개정 및 적용 시기를 연기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방송사의 환경·사회·투명경영 노력 촉진을 위해 가점제도로 도입한 취지를 고려,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예고와 별도로 평가 세부기준을 환경·사회·투명경영 전반을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방송평가 세부기준」 개정 시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행정예고(안)에 대한 제출의견 및 검토의견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즉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방송평가위원회에서 「방송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효재 상임위원

- 구체적으로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여부 등 평가' 3점을 가점하는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체크하는 것입니까?

### ○ 김성욱 편성평가정책과장

- 배점은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계획 및 성과를 종합해서

이사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3점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하는 것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면 3점 가점을 준다?

○ 김성욱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일단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종합해서 이사회에 보고하느냐 여부로 판단할 계획이고, 환경 경영목표 수립과 관련해서는 단기, 중기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여부를 보고 저희가 평가할 예정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지요?

○ 김성욱 편성평가정책과장

- 해당사업자가 계획과 성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면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받아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 여부는 중·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가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겠다는 의미입니까?

○ 김성욱 편성평가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어떤 계획을 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 사가 자체적으로 친환경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안형환 부위원장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2022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가> “2022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강필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2022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방송법에 따라 실시한 2022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개요입니다. 방송시장의 경쟁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으로 금년도 2월부터 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통해 시장획정과 분석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방송시장 획정(안)입니다. 전년도 시장획정 결과와 동일하게 수요 공급 대체성 등을 고려하여 4개의 시장에서 개별 시장을 획정하였습니다. 유료방송시장의 상품시장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으로 획정하였으며, 지리적 시장은 SO 방송구역으로 획정하였습니다. 방송채널거래 시장은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과 ‘지상파방송 3사별 채널재송신권 거래시장’으로 별도 획정하였습니다.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과 방송광고시장은 각각 전체를 단일시장으로 획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장별 주요 평가결과입니다. 시사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7조원 수준입니다. 이는 IPTV가입자와 매출액 증가로 인한 것으로 SO나 위성방송의 가입자 및 매출액은 감소 추세입니다. 시사점입니다. 유료방송시장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가입자 증가는 주로 복수가입자 증가, 매출 증가는 주로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OTT 성장 등에 따른 VOD매출 감소 등 유료방송서비스의 성장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료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으로 시장집중도가 높은 상태로 상위 3개 사업자 중심 과점체제가 방송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방송채널거래시장입니다. PP의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과 지상파방송 채널 재송신 매출액은 모두 증가하여 전체 방송채널 제공 매출액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1조 3,000억원 수준입니다. 시사점입니다. 공급측인 PP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수준이나 OTT 활성화 등으로 인기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부 유료방송채널의 경우, 높은 수준의 협상력을 보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상파방송 3사 채널 재송신권 거래시장에서는 콘텐츠 경쟁력을 보유한 지상파방송 3사와 대규모 가입자를 보유한 IPTV사의 협상력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측이 모두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방송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입니다.

외주제작비 규모는 전년과 대비 1.2% 증가한 9,000억원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특징은 지상파 외주제작비가 감소하고 자체제작비가 증가한 반면, PP의 자체제작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외주제작비는 증가하였습니다. 시사점입니다. 프로그램 거래시장에서 수요집중도는 높지 않은 사항으로 OTT 사업자의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수요측 경쟁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를 중심으로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권리를 보유하고, 방영권을 방송사와 OTT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방식이 증가하는 등 공급측인 제작사의 협상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나 교양, 다큐 등 비드라마의 경우 대체로 방송사의 협상력 우위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방송광고시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년도 방송광고 시장 규모는 그간의 하락세에서 상승 반전하여 전년 대비 19.6% 증가한 2조 9,910억원 수준입니다. 시사점입니다. 광고 매출액 기준 시장집중도는 소폭 증가했으나,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는 방송광고 점유율의 하락, 방송광고 상품의 유사성 증대 등을 고려할 때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디지털 광고시장의 성장과 OTT 사업자의 광고시장 진출 등 광고시장 변화가 방송광고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시장 관련 주요 이슈입니다. 금년도에는 OTT를 별도의 챕터로 꺼내어 기술하였습니다. 주요 현황입니다. '21년 넷플릭스, 웨이브 등 주요 OTT 사업자의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웨이브, 티빙 등 영업손실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OTT 이용률은 72%로 증가 추세이며, OTT 이용자는 평균 2.7개의 구독형 OTT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방송시장 영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영향입니다. 성장률 둔화 및 VOD 매출 감소 등 OTT 영향에 따른 경쟁 압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료방송서비스와의 제휴 등 TV를 통한 OTT 이용 편의성이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OTT의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경쟁 압력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방송채널거래시장에 대한 영향입니다. 유료방송 사업자가 OTT와의 경쟁을 위해서 확보해야 할 인기 방송채널의 협상력은 높아질 수 있으나, 비오리지널 콘텐츠 중심의 중소 유료방송채널의 협상력은 더욱 낮아져 PP의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직은 OTT가 실시간 방송채널을 본격적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향후 유료방송채널이 OTT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될 경우, OTT와 유료방송 사이의 대체성이 증가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에 대한 영향입니다. OTT의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 확대에 따라 프로그램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작사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협상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제작사의 경우 IP를 확보하여 방영권과 전송권 등을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광고시장에 대한 영향입니다. 글로벌 OTT 사업자의 광고시장 진출은 장기적으로 국내 OTT 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국내는 OTT 구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광고 관련 시장은 이미 유튜브가 선점하여, OTT 사업자가 광고를 통해 구독자를 확대하거나 광고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을지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OTT 사업자의 광고기반 요금제 도입 효과는 요금제의 가격 그리고 콘텐츠 구성, 광고 삽입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보고 이후 내년 1월에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작년도 광고시장은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GDP 성장률이 7.7%이고, 방송채널 거래시장 성장률은 7.5%입니다. 그런데 지상파 3사의 직·간접비 제작비는 절반 정도 2조 3,571억원 3.6%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그 가운데서 MBC의 콘텐츠 투자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년에 6,562억원에서 '21년에 6,348억원으로 3.3%가 줄었습니다. 콘텐츠 시장이 굉장히 지상파 3사가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시장인데 GDP도 성장하고 채널 거래 시장도 성장하는데 거기에 조용해서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챙겨 주십시오.

○ **강필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작년도 기준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 2020년 대비 방송광고매출액은 상승 반전했습니다만 전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도 감소했습니다. 유료방송 시장에서나 IPTV 3사 계열의 과점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OTT가 4개 확정 시장에서 모두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만큼 그 파급력을 향후 좀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먼저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위해 애써 주신 김 현 위원님과 평가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평가결과를 잘 분석해서 우리 위원회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장이신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장 김 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와 또 KISDI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보고서 발간 시기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 최종보고서는 4개의 단위시장에 흩어져 있는 OTT 관련 내용을 별도 파트로 정리해서 집중

도를 높였고 가독성을 개선해 국회 보고를 2023년 1월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통해 OTT 서비스가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더 심도 있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김 현 위원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빠뜨렸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원안 접수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되었습니다.

##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이 2022년도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사무처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오늘 처리한 안건까지 포함해서 총 16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회의 횟수에 비추어 한 해에 평균 3건 정도의 안건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위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책목표로 삼았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제도의 정비, 그리고 국민 불편 해소라는 큰 정책방향을 수행하는데 그래도 묵묵히 일을 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방통위 정책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출입기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 회의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연합뉴스의 이정현 기자님, SBS 전병남 기자님, KBS 지형철 기자님, MBC 오해정 기자님, JTBC 노진호 기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며칠 남은 기간 동안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기자님 등 모든 분들이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2년도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26분 폐회 】